

### 목어 "부처님 저 왔어요"



깊은 산중의 산사는 발길만 들여놓아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산사는 어울리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의 담담한 체취까지 겹쳐, 찾는 이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산사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사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수년전 네림의 친지를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서 하룻밤을 머문 적이 있다. 그분은 귀곡하여 나에게 그런 체험을 안겨준 고마움을 두고두고 감사해 했다.

아직도 나는 이런 담담한 체험적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현대 요즈음은 도회 속의 절이나 산사를 가릴 것 없이 속절없는 속세의 모습들이 뒤엉켜 있으니 그런 추억을 체험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변화라든 변화하겠으나 그 변화하는 모습들이 어떤지 안스럽다. 안스럽다는 뜻은 속세의 체취가 너무 강렬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를 보는 것 같아서이다. 절도 속세를 등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대 그 변화하는 모습에 어떤 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지 좀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산사만큼은 고요 속에 담담한 자세로 우리들을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절의 경계에 들어서면 입장료를 받는 수급처가 버리고 있고 표를 내고 들어가면 준비한 자판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절에 들어서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판기의 차 한 잔 값도 속세와 다르지 않다. 제 발로 찾아오는 대중들을 돈 받고 들일 일은 무엇이며, 자판기의 차 값이 속세의 차 값과 같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절은 관광지가 아니다. 구경 시키고 돈을 쟁기는 곳이 아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담담하게 도와주는 수련도장이야. 아차과 절 살림이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런 수익성(사업)보다 보시 받은 것으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면 좋겠다. "부처님 저 왔어요" 하고 말을 하면 자판기는 자동으로 차 한 잔을 따르듯 내어 놓는 절을 만들 수는 없을까. 템플스테이가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 · 본지 논설위원)

## 민주적 습성의 싹 밟지 말자

### 불자 세상보기

우리가 어떤 몸을 받느냐는 바로 전생의 습성, 즉 업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 습성에 가장 편안하고도 적합한 몸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렁이 제 몸 추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구렁이에게는 제 몸이 그 습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편안하고 좋다는 말이다.

우리가 몸이 업식에 배인 습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업식에 드러난 우리 전체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함께 지은 업, 즉 공업(共業)의 결과라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며 살아온 지 수 십년,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를 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습성을 익혀 오고 있는가? 민주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개인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사고방식, 그러하기에 그 충돌을 조절하는 합의의 준수, 절차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방식, 이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과연 우리들이 편안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민주화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야 하고, 또 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실히 지키면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 사회란 함께지는 공업

### 더불어 잘 사는 길은 불편함 견딜 줄 알아야

들 자신도 자신이 구호로 내세우는 민주화가 자신의 몸에 익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민주적인 방식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다면 절대 민주적인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민주적인 사회가 갑자기 온다고 해도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고 금방 핑계쳐 버리리라. 실제로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독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편한 점이 많다.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고는 절차를 무시하고 확 믿어붙어서 일을 이루는 데는 독재보다 편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 절차, 저 절차, 이쪽과 합의 저쪽과 절충, 그러는 사이 세월은 가고... 언제 일이 될지 모르는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민주적인 사회에 살 수 없다.

환상을 깨야 한다. 민주주의는 마냥 좋기만 하고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운동을 하는 분은 한마디로 환경 운동의 출발점을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그러한 사회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회에 적합한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습성으로 익혀 나가야 한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다.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나와 나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식, 지루하고 불편하더라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방식, 그러한 것들을 나와 우리 주변에 정착시키고 익혀 나가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의 소리

### "게시판 훼손내용 즉시 삭제하길"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통해서 불자들의 향기를 접하는 평범한 아줌마이다. 그런데 근간에 여러 불교사이트에서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는 '김인근 장로님과 차미향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그 단념없는 비방과 폭력으로 어질러진 인터넷 도량을 치워주시길 않으니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편안했던 불교 홈페이지는 방문을 열 때마다 잔뜩 긴장돼 지금은 불교 홈페이지 방문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집주소를 알려주는 불자들도 있었겠는가.

홈페이지 관리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데, 저 같은 중생들이 더 이상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도록 이 시대의 도량과도 같은 홈페이지 지키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불교 홈페이지는 불자들이 오히려 업을 짓고 나가지 않도록 좋은 지우개 마우스로 신속하고 깨끗하게 지우는 '삭제하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옥신(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 인사동에 5층상가

### '문화의 거리' 퇴색

오랜만에 인사동에 나가보았다. 여전히 노점상과 극적불명의 토산품들이 마치 한국 전통의 것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로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인사동 한가운데 문을 연 '인사아트프라자'였다. 인사아트프라자가 어떤 곳인가가 궁금해진 나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려했던 대로, 먹거리 불거리 살거리 소비문화의 일부로 인사동을 타락시킬 포박나의 자본주의적 상징물이 들어선 것이었다. 지하에는 음식백화점이 들어서 있었고, 1층부터 5층까지 장신구에서부터 도자기, 생활한복 등의 상품들이 즐비했다. 물론 우리 전통문화상품들도 있었지만, 어떤지 규격화된 건물에 박제처럼 전시된 것이 보기 딱했다.

우리 것을 알리고, 그것을 소비로 연결시켜 결국에는 관광수입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상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인사동까지 저런 거대한 상가가 들어서야만 했는지 너무도 안타까웠다. 인사동이 유명세를 탄 이후부터 줄곧 흥망을 알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이렇게 박에 내버려둘 수 없는지,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민선(서울 성북구 보문동)

### 저 부처님은 왜 목이 없을까?

### 수련회 다녀오서

이번 겨울 수련회 기간동안 경주 남산을 다녀왔다.

들던 대로 많은 불상이 있었다. 그 중 삼릉골에 석조 여래 좌상인 목 없는 불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그 불상을 보면서 '저 부처님은 왜 목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얼굴이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웃는 표정, 화나는 표정 등 자기에 맞게 부처님의 얼굴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본래 얼굴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맞추어 화를 받아주고 상대방 기

분을 잘 맞추어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이어졌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정된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고 상황 따라 바꿀 수 있으니 고정된 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만약 부처님의 얼굴이 있고 그 표정이 느긋한 표정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처의 얼굴을 보고 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목 없는 부처님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불상의 뜻과 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김관수(대구 한마음선원 학생회 · 수성동 2년)

### '석불도 중국산 러시' 기사를 읽고

### 외형불사 지양... 인재·복지에 관심을

352호에 보도된 '농산물 이어 석불도 중국산 러시' 기사는 좋은 기사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자존심은 생각지도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작품들만 잔뜩 남겨 놓는 불사에만 매달려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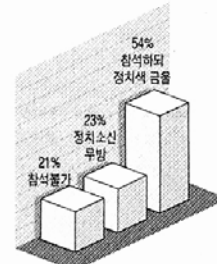
문제는 중국산 석불뿐이 아니라 인재,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인재불사는 일부 스님들은 사리를 갖고 들어온다. 출처도 불분명한 사리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와, 사찰에 사리를 세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천년고찰에 까지 사찰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거대한 탑들을 세워 전체적인 조화를 깨고, 어색함을 주는 것이다. 형상을 집착한 불사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보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인재불사에 관심을 갖도록 인재불사에 나서서 참 불사가 아닐까 한다.

김교문(부다뉴스)

### 불교와 선거

부다뉴스 '지금쯤은 논쟁 중' 코너에서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정치와 종교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1월부터 16일까지 부다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불자들도 오히려



### "종교지도자 정치중립" 75%

러릴 각종 선거와 관련 불교계 지도자들이 "중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 15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중립 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네티즌은 115명(75%)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3명(21%), 참석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도 좋다는 의견이 36명(23%)이어서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추운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수분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끓인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열거 97기너를 덮은 뒤 완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빙속에서 끓어오르면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열거가 다 들어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교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불교한문학과 개설!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에서는 2002년 새학기 부터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에 이어 불교한문학과를 새로 개설 합니다.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강해하기 위한 한문법어론, 중국고전, 한문불교경전을 공부하여, 우리불자들이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신심과 신행을 겸비하는 불자상을 목표로.

### 1.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
한문해석법(1), 한문해석법(2), 전수경, 발심수행장, 명심보감, 장자, 주역,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심재동교수, 무진장스님, 송찬우교수, 김병조교수, 한정섭법사, 김미선교수

### 2. 개강일시: 2002년 3월 7일 (목) 오후 7시

### 3. 교육장소: 동산불교회관

### 4. 모집인원 (50명: 정규, 통선)

### 5. 문의처: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불교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당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선반)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학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미ש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우리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학일시: 2002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보현각(조계사당) 02)733-0333 · 부산: 불서보금사 051)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원 053)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예전수리서점 064)749-4455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